



## 발로 뛰는 학부모, 행복한 교육

2월 4일부터 5일까지, 대전 유성유스호텔에서 '참교육학부모회 2012년 27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1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특강 '리더십과 활동가의 역할', 토론회 '지방교육자치시대, 우리회 활동방향', 정기총회, 지부지회 활동사례 나누기, 신입회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총회 후 어울림 마당에서는 맛난 과메기와 닭강정, 흥성 막걸리와 함께 지부지회별 장기자랑이 있었으며, 의정부지회가 영예의 1등으로 특별지원금을 수상하였습니다. 본부 홈페이지 자료마당 사진자료에서 그날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하세요~~



발로 뛰는 학부모, 행복한 교육  
참교육학부모회 2012년 27차 정기총회

일시 | 2012년 2월 4일(토) ~ 5일(일) 장소 | 대전 유성 유스호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신임 임원 · 지회장 인사말

#### 자원봉사 상담원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그 동안 학부모상담실을 알차게 이끌어오시던 박부회 전 실장님의 정성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담실에서는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녀문제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상담원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학부모님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유경 (상담실장)

#### 회원 여러분을 만기에

아이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참학문을 두드린 지 10년.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직접 일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며, 지회가 13년 동안 고생한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을 만기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영어소모임, 운영위원, 총무 일을 하면서 많은 회원들을 알게 되었으니 틀림없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지요. 지회 특유의 끈끈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장윤영(거제지회장)

#### 배려심 깊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들자!

어려운 여건 속에 지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우리 지회 여러 회원님들의 응원 속에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라는 곳이 공부와 입시가 아닌 웃음이 가득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 갈수 있는 김해지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자(김해지회장)

#### 나 먼저 바뀌어 모두가 하나 되는 그날까지!

참학을 만나며 '아! 내가 원하는 바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발을 들인지가 8년. 그 동안 활동을 꾸준히 했지만 지회장은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과 지난 세월이 알려준 의무감에 과연 내가 역할을 잘해나갈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나 하나 바뀌어서 무엇이 될까 생각되지만, 나 먼저 바뀌다 보면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여럿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여럿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최정희(나주지회장)

#### 여럿이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암에서 참학을 준비할 때 초등학교생이었던 딸아이가 고2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은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입시위주 교육, 높은 대학등록금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한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요리동아리, 영화모임)도 시작하려 합니다. 영암지회 회원님들 자주 자주 얼굴 뵙시다!

최옥주(영암지회장)

#### 지역주민과 더욱 폭넓게 소통하는 교육운동

지역주민과 더욱 폭넓게 소통하는 참학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신입회원 증가와 기존의 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일에도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선배활동가들과의 정기적 모임도 활발히 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이슈 서명운동 및 거리홍보활동을 통해 흥성 참학의 역량과 운동성으로 지역교육현장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학부모가 바로서야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신선정(홍성지회장)

### 이달의 주요기사

- 02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_ 서울형 혁신학교, 선사고등학교
- 04 교육자치 \_ 성라초등학교 김유신 학부모회장 인터뷰
- 05 정책 \_ 학부모가 원하는 2012년 총선 핵심 교육 의제
- 06 기획특집 \_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하나요
- 10 지부지회소모임 \_ 김포지회 동회임는 어른 모임 '또또 북'
- 14 학부모한마당\_ [미중물] 강순원 자문위원 컬럼
- 15 사설 \_ '학교자율'인가? '학교장자율'인가?

###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 2.8 [논평] 학교폭력의 원인을 잘못 짚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근본 대책이 아니다.
- 2.20 [2011년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논평] 실제 사교육비 지출 현황과 교육비 부담 고통을 외면한 궤어 맞추기식 발표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㉓ 서울형 혁신학교 '선사고등학교'

# 믿음과 존중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선사

〈편집자 주〉 소통·협력·돌봄으로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선사고등학교는 2011년 3월에 개교한 공립 학교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서울형 혁신학교다. 현재 1학년 250명 남·여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신입생 250명이 등록을 마치고 입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작년 한해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울 때 우리 학교 운영방식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3주체(학생-학부모-교사)협약을 통한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15명 단위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편성된 '복수담임제' 등 학생돌봄중심 운영방법이 학교폭력방지의 대안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교육적 행보가 여러모로 학생중심, 인권중심의 교육적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는 있지만 학교폭력이나 무한경쟁 등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다만 학생을 인격체로서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교사의 기본 책무를 다함으로서 얻어지는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선사고의 첫 행보는 '교가 만들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역할을 각자가 적고 하나하나 의미를 살려 그 내용을 가사로 만들고, 곡을 붙여 아름다운 교가를 완성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교육적 결실이며 학생중심 교육이념을 실천한 초석이 되었다. 교가를 부를 때 마다 학생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교사들은 교육적 의지를 새롭게 다

짐한다. 두 번째는 과밀학급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주일 동안 토의한 결과 30명 단위의 학급을 15명 단위의 '소학급'으로 나누어 교과수업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을 소학급 단위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담임이 2배로 늘어나 3명을 제외한 모든 교사가 담임이 되는 부담이 발생하였지만 1년간 운영한 결과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만족했다. 교사 또한 학생 개개인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학급운영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15명 담임을 함으로써 기존학교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웠던 「학급야영」, 「개별진로면담」, 「학습플래너 점검」, 「모둠일기」, 「반별수학여행」, 「학급앨범」 등의 행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효과를 보았다. 좀 아쉬운 점은 교사 수급과 공간 부족으로 인



교가 노랫말 만들기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공청회

해 1학년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여 만든 '공동체협약'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생만 지키는 규정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가 지켜야 할 내용이 따로 지정되어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약속은 '체벌을 하지 않는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한다' '칭찬을 많이 하고 학생의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해 준다' 등 13개, 학부모의 약속은 '잠을 충분히 재운다'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인성적 측면에서 감싸준다' 등 역시 13개 조항이다.

우리학교 1년간의 교육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여 미래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육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선사고등학교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학교가 아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주는 학교가 되고자 모든 교직원이 학생, 학부모와 함께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다.

유신모 (교감)

## 가장 행복한 기억 선사축제

지난 한 해 학교생활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선사축전. 3일간의 체육대회는 체육선생님과 학급회장들이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식 함양을 위한 단체경기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반 대항 줄넘기, 줄다리기 그리고 계주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대회 끝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강강술래를 하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학생회에서는 다음 날 진행될 선사축제 준비를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선사축제 프로그램과 선사화페 등을 기획하여 완성도 높은 축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시마당은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미술수업 때 제작한 등공예 전시 등으로, 참여마당은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여 음식을 팔거나,



게임을 하는 것으로. 등교하면 학생들은 먼저 전시마당과 참여마당을 체험하고, 저녁을 먹은 후 학생회 중심으로 축제의 중심 공연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축제도 처음이고 학생회 인력도 부족한 탓에 공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도움과 학생들의 격려로 힘을 내어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공연이 끝나고는 선생님께서 만든 불꽃놀이를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학생의 날 포럼입니다. 토론 논술반 '날애'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퀴즈를 통한 학생들의 직접참여로 학생의 날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교생이 함께 즐기고 배우며 제1회 선사축전을 마쳤습니다.

저는 2011년 학생회를 경험해본 결과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으나 끝까지 격려해주시는 선생님 과 적극적인 참여로 힘을 보태주는 친구들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니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전에 참여한 친구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기 바랍니다.

이지연 (1학년)

## 나를 변화시킨 선사 공동체



솔직히 학교를 배정받기 전까지, 이 학교는 정말 오기 싫었다.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혁신학교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도 엄격한 규율이 존재했고 걱정했던 것처럼 무질서와 방종으로 흐르지 않았다.

나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도 이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경험한 첫 번째 특징은 정말 ‘학생들의 학교’라는 점이다. 교가를 우리가 직접 작사하고 학교 규칙을 우리 스스로 정하고 그걸 점검하는 것도 학생들의 몫이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다보면 책임감이 생긴다. 이전에는 ‘우리가 못하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사명감도 생긴다. 반대항 구기대회를 예로 들어보겠다. 시작은 아주 작았다. 누군가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걸고 반

대항 축구 대회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많은 학생들이 동의했다. 여론이 형성되자 학생회에서 이 대회를 체육부와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선생님도 우리를 믿고 한번 해 보라시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 심판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직접 뽑고, 선생님께서는 심판교육과 운동장에 라인을 그리는 일등을 도와주셨다. 우리가 필요할 때 선생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셨다.

기존 학교는 우리를 한없이 어린 아이로 가두어 놓는 것 같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면 보다 성숙해진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음을 느끼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값진 경험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학생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우리학교는 내게 단순한 공부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킨 가족과 같은 공동체다.

권택현 (학년)

## 우리 선사고등학교는요



학습플래너

우리 학교의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OT** -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을 지내며 친구들과 친해지고, 직접 우리들이 교가작사도 해보고, 학교에 대한 설명도 들으면서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개교식** - 선생님은 물론 학생들도 바쁜 행사. 개교식 무대에 우리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풍물반, 연극반, 합창반, 학생회 등이 수업이 끝난 후나 점심시간에 연습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개교식이 다른 학교 같이 그저 조용히 치러지지 않고 시끌벅적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 뜻 깊었습니다. **만우절 행**

**사** - 선생님 주최 하에 학생들을 속이는 식으로 진행. 좀 허술하고 어색해서 다 들켰지만 재미있고 잊지 못할 만우절이었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선생님을 속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 별 구기대회** - 여자는 피구, 남자는 축구를 하여 우승 반을 뽑는 대회. 처음에는 ‘그런 걸 왜 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시험 때가 되면 모두들 이기려 힘을 합쳤습니다. 4반과 6반이 우승했지만, 결국은 최선을 다한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 - 전체가 함께 가지 않고 반끼리 가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 모두 다른 여행지를 다녀왔습니다. 적은 인원이 가니 시간도 절약 되고, 2박 3일 동안 게임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니까 친밀감이 더 생겼습니다. MT 때는 허술하게 준비해서 재미없고 지루했지만, 수학여행 때는 MT보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 더 재

미있었습니다. **학습 플래너** - 창의체험활동 시간에 쓰는 자기공부계획서. 어제 하루 어떤 것을 공부 했는지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공부 다이어리입니다. 때로는 어제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쓰기도 귀찮지만, 이것을 씬으로 해서 미래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사 프로젝트** - 이것을 하기 위해 돈도 많이 투자하고 힘을 많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잘한 12팀을 뽑아 시상도 합니다. 12팀 중 6팀은 모두 모인 앞에서 PPT를 만들어 발표합니다. 다음 학년들도 볼 수 있게 전교생의 것을 ‘선사논총’이라는 800쪽 분량의 한권의 책에 담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썼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학급앨범 제작** - 학급 앨범제작반 아이들이 플립앨범에 자기 반 아이들의 1년 동안의 사진들을 넣어 CD로 만드는 것.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떠올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학년)

## 학부모로서 지켜 본 선사고등학교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집 근처에 혁신학교가 들어선다는 말을 들으며 무척 걱정스러웠다.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교와는 다를 거라는 소문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사고등학교에 배정받고 나서 그 불안함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온 아이가 선생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학교를 보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교가도 인상적이었고 선생님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에서는 사랑과 열정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얼마 후 학교에서는 학부모 학생 교사 3주체가 모여 공청회까지 거쳐 공동체생활협약을 만들었다. 퍼머나 염색 등 두발 자유화와 화장과 피어싱에 대한 용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냈지만 일단 믿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보기로 했다.

학생들의 주장이 내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머리를 길렀거나 퍼머를 했다고 해서 학생의 내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동안 기성세대인 나는 겉모습으로 아이들을 판단해왔다. 그래서 염색이나 화장 등을 한 친구를 보면 왠지 공부와는 거리가 먼 불량학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웠다. 그런 걱정은 아이들을 믿지 못하는 어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선사고등학교만의 독특한 제도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한 학급을 두 분의 담임선생님이 맡고 계신다. 그래서 한 분의 담임선생님이 15명 가량의 학생을 책임지고 보살핀다. 그 결과 학생들과 1대 1 상담은 물론이고 학생 개

개인에 대해 훨씬 들여다볼 수 있다. 사제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학교나 학급 분위기를 활기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토양은 잘 마련되었다. 학부모로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어보자면 효과적인 공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다. 인성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물론 좋지만 이것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이려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 분위기는 좋는데 공부는 영망이라면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라면 학습 또한 다른 학교에 결코 밀릴게 없으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사고등학교 선생님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혜경 (학부모)

# ‘행복한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합니다

## 성라초등학교 김유신 학부모회장 인터뷰

〈편집자 주〉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성라초등학교 김유신 학부모회장을 만나 학부모회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유신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학부모회를 꾸려왔다.

**문 : 성라초 학부모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답 :** 기존에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급식검수, 독서도우미회 등의 봉사단체가 있었어요. 기존 단체장과 회원을 학부모회 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문 : 많은 학교들이 학급대표를 뽑아서 학부모회를 꾸려가고 있는데 학부모 봉사단체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학급대표는 성격상 각 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반대표 모임이 없었어요. 개개의 반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기위해서는 학년이 섞여 있는 단체장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 학부모회에서 진행한 일과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답 :** 단체별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맡아 숲체험, 선사박물관 등 체험활동을 했고, 급식검수에서는 6차례 요리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어머니폴리스에서는 5번의 학부모교육을 계획·진행하였고, 독서도우미회에서는 매주 1, 2학년 각 반에서 책읽어주기와 수요일 독서 후 미술활동, 그리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독서골든벨을 진행했습니다.

첫해는 회의와 진행 등 모든 일을 회장과 단체장이 하느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2011년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체의 색이 확실해지고 단체장과 회원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회장의 일이 줄었고요. 학부모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학부모지원사업 회계처리를 하는데 주부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힘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바쁜 중에도 안내장 배부, 홍보와 신청접수를 도와주셨어요. 요리교실 같이 인원이 제한된 프로그램은 많이 신청하면 곤란한 일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문 : 학부모들과 학교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답 :** 첫해는 학부모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과 소통하며 활동과 계획을 공유하다 보니 학부모회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만나면 밝은 표정으로 수고한다고 인사도 해주시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학부모상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학교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부모의 참여가 내 아이를 위한 치맛바람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라는 의식변화가 생겼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만으로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 커지고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 : 학부모회 회장을 맡으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많지만 한 가지 꼽으라면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또 인원수가 제한된 프로그램이어서 참여 못한 아이들의 아쉬움을 들을 때였어요. 학부모 책 동아리가 꾸려진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문 : 올해 계획과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답 :** 올해는 5, 6학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아버지 모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에 바라는 것은 지금만큼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구요. 선생님의 관심과 지지,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에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있었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이 되었으니까요.

김정인 (수습기자)



##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아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3대 수칙

**1. 학교생활주변의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세요.**

**첫째,** 천으로 만든 필통을 사주세요. 합성피혁, 레자등 인조가죽으로 만든 학용품은 납과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이 많아 위험합니다.

**둘째,** 지우개 씹는 버릇이 있나 살펴주세요. 지우개가 부드러운 이유는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위해 프탈레이트 없는 안전한 지우개를 사주는 것, 잊지 마세요.

**셋째,** 아이들의 장난감 액세서리를 주의하세요.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금속 반지에는 납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저학년에게 휴대폰 선물은 좋지 않아요. 휴대폰 전자파는 암을 일으킵니다. 어릴수록, 머리에 가까이 할수록,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특히 뇌암 발생이 높으니까 더 위험하겠죠? 휴대폰을 이미 사주셨다면 짧게 통화

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다섯째,** 물과 비누로 손 씻는 습관이 가장 좋아요. 손소독제에는 환경호르몬인 트리클로산이 들어있어요.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도 일으키죠. 물과 비누로 올바르게 씻으면 충분히 깨끗합니다. 무분별한 향균제품 남용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2. 학교 안의 유해물질에 관심 가져주세요.**

**첫째,** 교실에서 수은온도계가 사용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온도계가 깨지는 사고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요. 강력한 신경독성물질인 수은은 절대 안 되겠죠? 안전한 온도계를 사용하도록 학교에 건의해주세요.

**둘째,** 교실 천장의 석고보드를 잘 살펴주세요. 아이들이 천장에 교과서나 물건을 던져 석면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깨진 조각에서 석면가루가 떨어져 나오면 위험하답니다. 석고보드에 금이 가 있거나, 깨져있거나 젖어있으면 학교에 교체를 건의해주세요.

**셋째,** 모래밭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좋아요. 인조잔디는 페타이어를 재활용해 만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깔면 어쩌냐고 물어오면 모래밭이 더 좋다는 입장을 밝혀주세요.

**3. 학교급식도 가정식처럼 안전하게 먹도록 해요.**

**첫째,** 학교 급식에 안전한 내부 코팅제를 사용한 통조림만 쓰도록 건의해주세요. 통조림 내부는 녹슬지 말라고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제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녹아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스페놀A로부터 안전한 통조림을 사용해 달라고 학교에 꼭! 건의해주세요.

**둘째,** 친환경으로 급식을 조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주세요. 친환경 농작물에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몸에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주세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준)

# 학부모가 원하는 2012년 총선 핵심 교육의제

4월 11일 치르는 제 19대 총선은 이명박식 경쟁교육이 지속될 것인지, 배움과 협력의 교육혁신을 앞당길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회는 교육단체와 함께 <2012 총대선 승리를 위한 교육단체 공동행동(이하 '교육공동행동')>을 구성하여 다가오는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성적이 아닌 각자 다른 재능이 꽃 피는 새로운 교육,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이기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4.11총선 의제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자. 이 글은 '교육공동행동' 총선 의제 중 '학부모가 원하는 핵심 교육의제'이다.

## 1. 아동과 청소년 권리 보장

통계청의 201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또한 '최근 1년 사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질문에 87.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이 응답자의 1위(72.6%)는 '공부문제'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답하였다.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이 안 되는 청소년들의 건강권, 수면권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이다. 과도한 입시부담, 성적경쟁을 완화하여 청소년의 심신의 고른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 보충아자학습을 자율화하고 주5일제수업 확대에 따른 수업시수를 축소해야 한다. 성적경쟁 완화, 대입제도를 자격사화하여 입시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 집중이수제, 국영수 중심 학업 부담을 없애고 고른 과목을 배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학습 이외 문화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동아리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안팎의 쉼터와 수련시설 및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시설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농산어촌 및 교육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재정투자와 시설확대를 통해 농산어촌과 도시 구분없이 균등하게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정부 부처통합 '학업스트레스 줄이기'를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

## 2 학부모, 대학생의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의 총규모는 약 20조원이 넘고,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격차로 인한 교육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기숙형 학원들이 법적인 근거 없이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고 스파르타식 반복학습, 선행학습, 문제풀이식 학습과 면회, 외출 금지, 체벌 등 반인권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고용불안과 함께 대학생은 취업에 필요한 조건인 스펙(학점, 영어, 해외연수, 자격증 등)을 갖추기 위해 영어, 전공, 자격증취득 등에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특목고, 자사고 등을 포함한 고교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

- 영어몰입교육,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 초·중학교까지 석차없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 학원교습시간 단축 및 수강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 유치원 영어교육 및 초중고 선행학습과 기숙학원 수업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 취업, 공무원시험 등 인력선발에서 영어(인증)능력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 3 OECD 수준의 학습환경 구축

세계적인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의 학습 환경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 초등학교 21.6명 : 한국 30.0명 / 중학교 23.9명. : 한국35.3명. 출처: OECD(2010)>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여건이 좋아졌으나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및 학급 간 양극화가 심하고, 특목고와 일반고의 교육여건 격차도 심하다. 또한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보다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

- 2017년까지 거대 과밀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학급 수를 감축하여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유류교실을 창의력 교육시설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신설학교는 학년 당 초등학교 4학급, 중고등학교 8학급으로 상한제를 도입하여 교육적인 규모 기준(500-600명) 마련하여 설립해야 한다.

-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려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 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며 통학버스 의무 운영 및 농어촌학교 기숙사 현대화와 확장을 해야 한다.

## 4 교육복지 확대와 무상교육 확대

많은 OECD국가들은 취학전 무상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취학전 교육의 무상화수준이 매우 낮다. 또한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OECD 국가들은 기본적인 학교 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교과서 대금, 학습재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영

국, 미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학부모 등 민간 부담률이 7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이다.

-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의무 교육제도를 마련하여 학습 준비물은 물론 학부모 부담경비를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및 대학원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 사립대학은 등록금 상한제(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를 실시하여 반값등록금을 만들어야 한다.

- 농산어촌(읍면동)의 고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급식재정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 학생 탈의실·휴게실 마련, 화장실, 정수 시설 개선, 초 등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와 질적 보장 등 학생 복지와 돌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 5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실현

경쟁위주의 교육정책, 권위적인 학교문화, 교육양극화 확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청소년기의 인정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학교 등 다양한 원인이 학교폭력을 가속시키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은 이러한 잘못된 교육정책을 개선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처벌과 격리 위주, 사후대책에 그치고 있다. 성적경쟁을 개선하고 학생인권조례 전면화, 처벌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 성적경쟁으로 내몰리는 교육과정, 학업부담 등 이명박식 교육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생활규정을 자치규정으로 개정하며 학교 내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육과 치유를 위한 지역 교육청 및 시군구 지자체 단위의 치유시설 및 대안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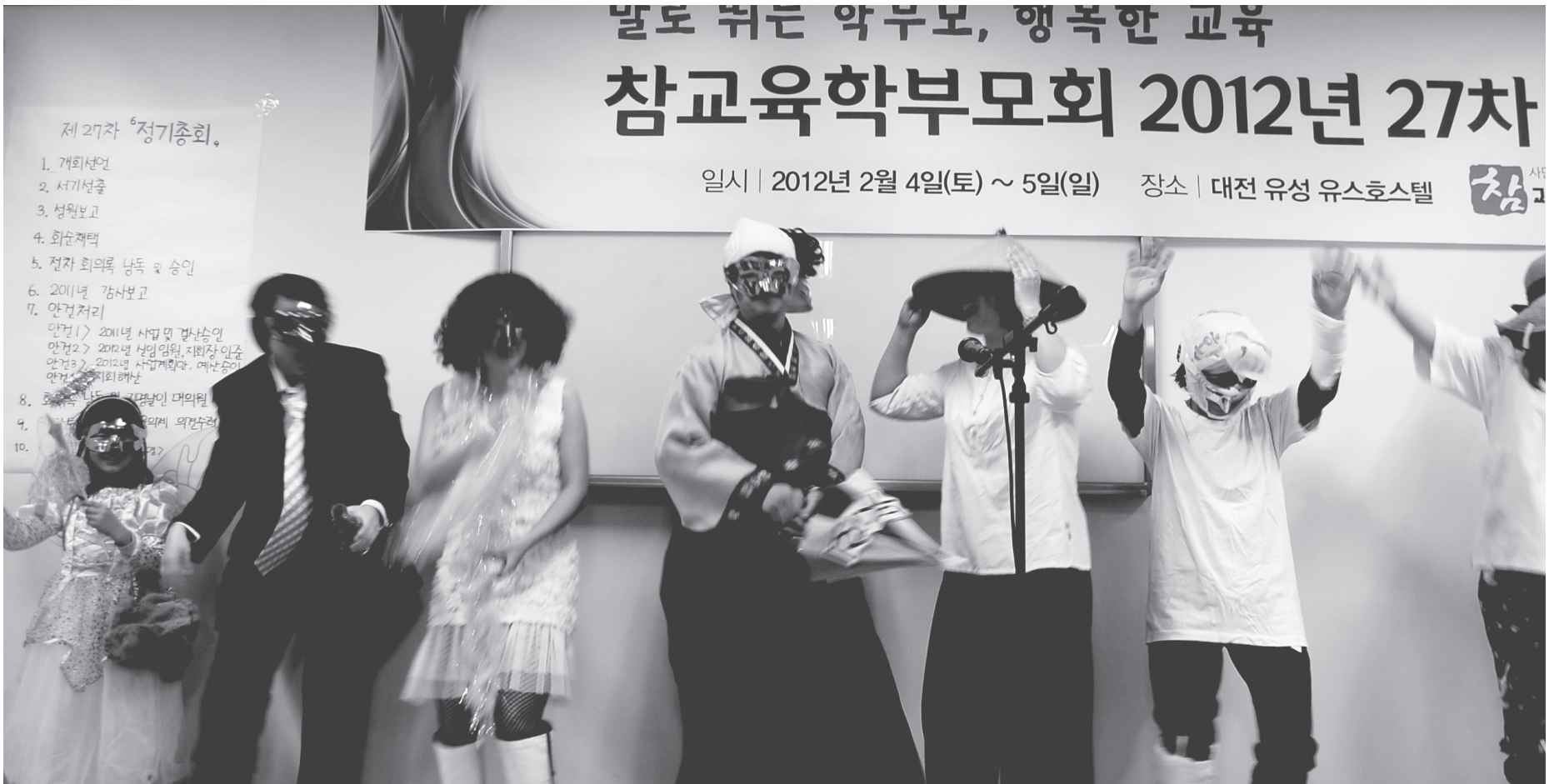
- 지역사회 청소년의 여가 및 활동 시설을 늘리고 청소년 또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인권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원의 전문성향상 프로그램, 인권지원센터, 교사학생의 건강치유센터 등을 마련해야 한다.

박범이 (수석부회장)

| 기획특집 |

# 27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소통



참학 일꾼 몇 년을 하면서 전국단위 행사는 이번이 처음. 그동안 일꾼으로서 역할도 많이 부족했고, 본부와 유선 또는 메일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 한번은 본부나 타 지역의 활동가들과 소통할 필요성도 있었지만 1박2일 일정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틀 동안 이어진 활동가들과의 만남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소통이었습니다. 일꾼이라는 짐을 지고 걸어가지만 이렇듯

동지들이 함께 어깨 잡고 격려하다보니 다시금 화이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충전이 올 한 해 지회의 일꾼으로 활동하는데 동력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먼 거리 수고를 마다 않고 운전으로 수고해주신 임청현 전 지회장님과 첫 지회장 소임을 다하신 성명자님, 알뜰하게 살림 살아주시고 멋진 오카리나 독주를 준비해주신 김은순 총무님, 오가는 동안은 물론 총회 내내 즐거운 웃음을 주신 구경금 회원님, 모두모두 감사하고 함께 힘 모아 10주년이 되는 2012년 김해참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뛰어보자구요. 화이팅! 김상명 (김해지회 사무국장)

## 4년 연속 참여하고 싶네요!

3년 연속 총회에 참석하며 첫 번째는 가입한 해라 정신없이 무엇을 했는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갔고 두 번째는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함께해서 '아! 이런 거구나!' 생각했고 타 지역 회원 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폭력심리치료 동영상 시청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여러 선배님들과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4년 연속 참여하고 싶네요!

유기동 (나주지회 회원)

## 놀고 먹고 자는 것 말고 뭔가 좀 알고 왔으면 좋았을텐데



참학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농촌체험학습이랑 같은 건줄 알고 엄마를 따라 갔는데, 너무 달랐어요. 체험학습은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농촌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는

데, 정기총회에서는 놀고 먹고 자기만 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엄마는 시민 단체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얼굴도 제대로 안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잠도 안오는데 억지로 자야해서 싫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좋은 기억도 많은 것 같습니다. 눈싸움도 하고 동생들과 할리갈리 게임도 하고 밤에 폭죽놀이도 했어요.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구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뒷골이 좀 땡겼어요. 잘 놀고 왔는데 웬지 아쉬웠어요. 놀고 먹고 자는 것 말고 뭔가 좀 알고 왔으면 좋았을텐데....

연구대 (남부초 6)



## 진정한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의 진한 감동

준비위원장을 맡고 처음 참가하는 모임인지라 참으로 설레고 부푼 가슴을 안고 총회장에 갔습니다. 아내에게 차를 뺏겨 대중교통으로 가다보니, 한 시간 늦게 도착하여 첫 강의를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좋은 강의였고 특히 4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기러기 동영상과 '삼류 리더는 자기능력을 믿고, 이류 리더는 남의 힘을 믿고, 일류 리더는 남의 지혜를 빌린다.'는 말은 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처음 참가하는 모임이고 우리 지회에서는 혼자 와서 어울림마당 전까지는 웬지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정심 안양지회장님과 장은숙 회장님, 최주영 부회장님이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론회 내용과 한민호 교육담당보좌관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열린 정기총회는 사뭇 진지했고 참으로 살아있는 단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당한 비판과 참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마저 갖게 되었

습니다. 특히 진정한 학부모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맑은 하늘만 보아도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것처럼 모처럼 순수한 단체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총회시간이 길어 좀 지루하기도 했지만 회원들의 열정은 많은 감동을 받게 하였습니다.

총회 후 어울림마당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덕분에 처음 보는 회원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어울림이 너무 좋다보니 다음날까지 음주를 하게 되어, 겨우 2시간 자고 일어나 식사하고 지부지회 활동사례 발표에 참가하였습니다. 지부지회 활동사례 발표는 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나주지회 머슴분들의 친절한 안내는 큰 도움과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왕지회 창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근 (의왕시 준비위원장)



## 만나서 소통하는 커다란 보람

역량도 없는 사람한테 2년 동안 '선배와의 대화'라는 한 부분을 맡게 해 주신 본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회 며칠 전부터 감기몸살로 인해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면서도 선배라는 책임감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네 분의 회원들을 마주한 자리는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신입회원들보다 기존회원 분들이 더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회장님을 지내신 분도 몇 분계시고, 선배회원들도 계시고 새내기회원은 오직 세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회원들과 이렇게라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제가 커다란 보람과 함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끝으로 "지회장을 내려놓더라도 지회에 남아서 후배들과 함께 즐겁게 지회활동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회원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정영미 (양주지회 교육부장)

# 아이들과 함께 엄마와 아빠도 행복하고 신나는 의정부지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1998년에 창립한 의정부지회는 내년이면 15주년을 맞습니다. 매년 학부모 대중강좌를 비롯한 자체사업과 교육이슈 관련 지역내 연대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은 봄가을에 자녀들과 함께 하는 문화답사, 방학기간 중의 초중등 인문학강의,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새내기 학부모교실, 그리고 자기성찰의 시간인 학부모 교양강좌입니다.

지역내 교육관련 사안의 연대활동으로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제정(2010년 시조례 제정)과 고교평준화 실현(2013년 3월 실시)에 힘썼습니다.

지난 2월 12일은 연천으로 두루미 생태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지회는 마중물(마음공부), 그림책소모임, 동화소모임, 영어소모임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지역 내 교육복지 확충과 혁신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제지회** 새내기학부모교실에서 1부 학부모 학교참여, 2부 학교생활 안내로 진행했어요



**고양지회** 즐거운 인생 회원들과 북한산 다녀왔어요



**김포지회** <제4회 대보름 행사> 윗놀이대회 1등은 명품 클래식 CD, 2등은 위인전 세트를 받았답니다



**김해지회** '특수학급 운영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새내기학부모교실을 색다르게 진행했어요



나주시회 매월 아빠모임을 신나게 진행하고 있어요



대구지부 인권소모임을 꾸준히 해 오고 있어요



서울 동북부지회 새내기학부모교실은 4강으로 진행했어요



수원지회 새학기 학부모교실 성황리에 마쳤어요




파주지회 새학기 학부모교실 끝나고 고병헌선생님과 함께



전남지부 거점고 육성 공청회에서 오승주정책실장이 반대 의견 토론자로 참석, 큰 호응을 받았어요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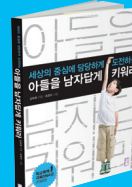
박미영 지음 | 이일선 그림 | 192쪽 | 가격 13,000원

# 유대인처럼 자녀의 의사결정능력을 키워주어라!


## 의사결정능력을 키워주는 유대인의 자녀교육 38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게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정신을 북돋아 주는 데 있다.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이들이 세상을 리드하는 이유도 의사결정능력을 키워주는 유대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부모를 위한 국민출판사 자녀교육서



세상의 중심에 당당하게 도전하는 아들을 남자답게 키워라  
김숙희 지음 | 표정수 그림 | 232쪽 | 값 13,000원  
아들을 위대하게 키우기 위한 특급 솔루션 공개!



아이 스스로 즐기는 책벌레 만들기  
김서영 지음 | 200쪽 | 값 11,000원  
내 아이가 책벌레가 되기를 바라는 엄마를 위한 지침서!



상위 1%가 되는 초등 공부습관 만들기  
김동환 지음 | 208쪽 | 값 10,000원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를 1등으로 키우는 비결 제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2-14 전화 02/322-2434 팩스 02/322-2083

지부지회 소모임 - 김포지회 동화 읽는 어른모임 '또또 북'

# 그림책으로 지은 상상의 성(城)에서 아이처럼 놀기

'또또 북'은 그림책과 동화책을 보며 노는 엄마들 모임이다. 모임 이름이 얼른 복권을 연상케 하지만, 그 영향력은 그에 못지않다고 자부한다. 모임을 진행하며 정체성을 담보할 모임 명을 공모했는데, 한 회원(희정씨)이 책을 빌려 가면 아이들이 "엄마 또 읽어주세요. 엄마 또, 또..." 하는데서 영감을 얻었다며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지은 이름이다.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엄마한테 책 읽어 달라고 조르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아름답지 아니한가?

지난해 9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 만 5개월여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모였다. 지회가 마련한 '깡이부리말 아이들' 작가인 김중미씨 초청 강좌 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동화 읽는 소모임' 참여 의사를 파악한 것이 동아리 구성의 계기가 되었다. 김 작가는 아이들 성장에 특별히 긍정의 영향을 끼친 책들을 소개하고서, 아이들에게 하듯 그림을 보여주며 읽어줬다. 참 특별한 경험이었다. 오랜 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 운영 이야기를 그림책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림책을 갖고 놀며 자란 아이들이 대학생이 된 후 '기차길 옆 작은 학교'라는 인형극단을 꾸려 훌륭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공연관람을 통해 확인했다. 그 날 '또또 북' 회원들이 그림책으로 소통하는 김중미 작가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모임은 그 강의에서 비슷한 느낌을 공유한 일곱 명의 젊은 엄마들과 북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통성명을 하고 낮을 익히고 다음 모임 장소와 읽을 책을 선정하면 일주일은 금방 갔다. 모임이 반복 되면서 같은 책의 서로 다른 느낌들을 공유하며 울고 웃다 보면 두 시간은 늘 아쉬웠다. 그러는 동안에도 몇몇 회원은 본부가 주관한 글쓰기 강좌에도 참여했다.

사람의 성장과정에 맞춤형 장난감으로 책만 한 게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서 보여주면 좋을까?'는 젊은 엄마들의 고민 사항이다. 이런 고민을 함께 풀자는데 뜻을 모은 우리 지회는 앞서 비슷한 취지로 모임을 운영 중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소속 강사 두 분께 모임 리드를 부탁했다. 강사료 한 푼 드리지 않고...(이건 집행부의 탁월한 섭외력보다, 열결에 승낙하고 멤버십에 동화 된 선생님들의 자발적 봉사라고 난 믿는다...) 이렇게 매주 선생님들이 추천한 작가별 그림책을 빌리고, 때론 구입해서 읽은 후 만나면 서로의 감상들을 풀어 놓고, 각기 다른 시각과 느낌을 공유한다. 격을 갖춘 수다의 결가지들이 풍성해질 즈음엔, 돌아가며 맘에 담아 온 책을 낭독한다. 모임의 절정이다. 책을 가슴에 안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던 누군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 속의 주인공이 된 어른 아이들은, 맘 문을 열고 그림 속을 산책하

고 돌아오면, 신비로운 아이들의 상상력을 그림으로 재현한 작가들의 천재성에 탄복하며 부러움과 고마움을 표현한다. 한 번도 본적 없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선망하며 고마움을 갖게 하는 그림책의 매력은 매주 우리를 설레게 하는 동력이지 싶다.

오늘이 19번째 모임. 누가 특별히 권하지 않았지만, 개근 출석한 회원으로 우리 모임의 자랑거리를 찾아 봤다. 우선은 젊고, 모두가 순하고 예쁘다. 기준은 물론 내 맘이다. 회원들의 평균 연령도 젊지만, 그림책을 보는 동안은 모두 어린아이다. 엄마가 되어 일상에 묻은 아련한 기억들이 스멀스멀 기억 위로 떠올라, 아롱다롱한 책 속 그림에 얽히면 우린 타임머신을 타고 유년기를 여행한다. 한 권의 책 읽기가 끝날 때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온갖 질문과 느낌들을 풀어놓는 우리는 영락없는 아이들이다. 둘째, 구성원간의 조화로운 친화력이 기다림을 선물한다. '바빠'를 입에 달고 지내면서도 '또또 북' 모임 약속을 우선하는 것은, 그림책에 대한 기대와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더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단언컨대 확인 불필요^^) 매주 월요일 오전이면 그림책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모여드는 회원들의 환한 얼굴이 증거다. 둥근 책상에 둘러 앉아 영



국, 독일, 미국 등 유명 작가들의 그림책을 어루만지며 느낌과 견해들을 섞고 일상의 양념으로 버무리는 놀이는 즐거움의 발견이다. 셋째는 우리 모임이 자녀와의 관계에 훌륭한 매개라는 확신이다. 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때때로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온다. 아이에게 엄마들이 모여 그림책을 보며 토론하는 모습은 은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거다. 조용히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림책을 듣는 아이들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다. 훗날 우리 아이들 중에 그림책 작가가 나온다면...ㅎㅎㅎ '또또 북'은 상상력과 기억력의 산실이 될 것 아닌가? 우리는 매주 만나 그림책으로 지은 상상의 성에서 재밌게 논다. 아이가 되어...

심민자 (감나무, 또또 북 모임지기)

## 소통의 공간 '그림책'

한참 아이의 책을 고르기 위해 인터넷을 헤매고 뒤적거렸다. 밤새 컴퓨터 앞에서 찾아낸 거라곤, 유명한 전집 서너 종류 뿐...이것을 마련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매번 목돈 들여 장만한 전집은, 아이가 거부하는 책이 반 이상... 그 때마침, 내게 구원의 손길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그림책읽기모임 '또또 북'이다. 물론 그 때까지만 해도 동화읽기란 내 아이만을 위한 관심사였다.

모임 둘째 날이었는가? 소설은 커녕 아이들 동화책조차도 자신이 없던 나는, 책을 읽고 나서 혹여 질문이라도 날아올까 싶어 고개 숙인 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앉아있었다. 그 예전 학교에서 낭독 후, 반드시 날아오던 선생님의 총알 같이 아픈 질문들을 떠올리며...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 도움을 주려고 오셨다는 선생님의 손을 가만히 보니, 그 손엔 '흔하지 않게 해 주세요' 라고 적힌 조그만 책이 들려져 있었다.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저 아이도 내 아이 만큼 꽤나 혼나는가 보구나.' 하고 피식 웃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생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 딸아이의 목소리로 "나는 만날 혼나!"라고 말하는 듯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 날 아침, 어린이집 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운동화가 싫다고 벗어 던지고는 구두를 신겠다고 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차에 올랐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다. 주룩주룩 흐르는 눈물을 훔치느라, 그 때는 이미 눈에 안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아, 그림책이란 게 이런 거였어? 글도 얼마 없고, 요 작은 것이 이렇게나 강해?' 그렇게 그림책은, 내 아이의 속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시작점이었다.

매주 월요일, 아이가 아프지만 안다면 나는 꼭 참석한다. 단지, 책을 보기 위함만은 아닌 듯싶다. 아이를 낳고나서 찾아든 갑작스런 우울감과 자괴감도, 인생선배님들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 몇 마디면 싹 사라지기 때문이다. 함께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것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그림책이, 이제는 내가 더 좋아서 보게 된다. 그림책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도, 때론 내가 갈망하던 부분도, 아주 시원하게 다뤄줌을 느낀다. 모임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향언니가 그랬다. "남편도 몰라주는 내 마음을, 영국 작가가 알아주네." 라고... 아직은 그 감정들을 정리하고 다듬는 일에 미숙하지만, 그저 알아가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 이제 곧 봄이 온다. 야외에서, 그것도 꽃이 휘날리는 나무그늘 아래서 보는 그림책은 또 어떤 느낌일까? 항상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림책모임 '또또 북'.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본다.

김희선 (도로시, 또또 북 회원)

Q&A  
상담실

## 우리아이 힘들게 했던 선생님이 다시 담임이 되었다

**Q**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다. 1학년 때 담임이었던 교사가 다시 3학년 담임이 되어서 걱정이 크다. 이 교사는 결핍하면 학부모를 소환했다.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 “머리를 움직인다.” “복도에서 뛰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아이를 수없이 야단쳤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날엔 필기도구가 없다며 어떤 타이름이나 가르침도 없이 아이를 30~40분 세워놓았다. 물론 우리 아이가 좀 장난꾸러기고 형제 없이 혼자다 보니 친구 사귀는데 서툴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2학년 때 담임교사는 한 번도 아이 일로 나를 부른 적이 없었고, 사소한 잘못은 교육적으로 가르치고 관대하게 넘어가셨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나중에는 ‘착한 어린이상’을 받을 정도로 학교생활을 잘하게 되었다. 담임교사의 역량과 교육관에 따라 아이의 성장이 이토록 달라지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었다.

어제는 담임교사가 회장, 부회장에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을 체크하러 갔는데 우리 아이가 세 번 적발됐다. 우리 아이는 빨리 걸었다는데 회장은 뛰었다고 했고 그 일로 담임교사는 아이를 불러 야단쳤다. 아이가

계속 인정하지 않자 “네 엄마에게 말 하겠다.”고 했고, 아이는 “전화만 해보세요.”라고 했다. 아이가 말대답을 한 것은 내 책임이 크다. 그동안 나는 아이에게 1학년 때 너무 많이 학교에 불러 다닌 일을 말하며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나에게 전화해서는 전학을 가든지, 반을 옮기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화를 내서,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학년 초에 담임교사가 촌지를 절대 받지 않는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담임교사는 대부분의 엄마들로부터 촌지를 받았다. 난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 끝까지 안 했는데 또 3학년 때 담임으로 만나니 앞이 캄캄하다. 그래서 다른 엄마들 조언대로 촌지를 주고 1년을 편하게 지내고 싶기도 하다. 반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최선일 텐데 어쩌면 좋을까?

**A**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학부모와 아이들의 가장 큰 바람은 좋은 담임교사를 만나는 것이지요. 학기가 시작되고 한동안은 담임에 대한 기대와 걱정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썩 좋지 않던 선생님이다

시 담임이 되었으니 걱정은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작년에 안 좋았다고 해서 올해도 꼭 그러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아이도 그동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1학년 때보다는 나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기억을 되새겨 교사에 대해 판단하고 걱정하는 일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셨듯이 아이에게 1학년 때의 일을 이야기하며 신신당부를 하신 일은 잘못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가 작년에 착한 어린이상을 받았을 정도로 멋진 아이가 되었으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야.”라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말대꾸를 했다 해도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전학을 가든지, 반을 옮기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낸 것은 지나친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촌지를 고려하거나 학급교체를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태도가 심각하게 부당하고 아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다면 모를까 교사의 교육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면 학급교체는 불가능하고, 가능하다해도 아이를 위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

다. 오히려 아이는 여러 성향의 교사를 만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교사에게 말대꾸한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담임교사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를 하시며 아이의 변화 과정을 잘 설명하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교사도 자신의 경솔한 말에 대해 반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학년 때 끝까지 촌지를 하지 않으신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담임교사가 가정통신문을 통해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촌지를 한다면 촌지 관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글

## 기다려 줄걸 그랬어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의 꿈은 축구선수다. 친구를 좋아하고 운동에 소질이 있는 아이는 2학년 때 시작한 방과 후 축구를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축구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 후로 아이는 온통 축구생각뿐이다. 아침에 일어나 축구공을 굴리면서 밥을 먹고, 학교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가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까지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온다. 그것도 모자라 저녁에는 친구들과 근처 체육공원에서 밤이 늦도록 축구를 한다. 이렇게 축구를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실력이 늘어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축구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다.

문제의 시작은 근처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의 눈에 띄어 “전학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권유를 받게 되면 서부터 아이가 아닌 내가 아이와 축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아이의 방과 후 축구를 쫓아다니며 응원을 하고 아이의 실력을 확

인하고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진짜로 축구선수가 되어도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 겨울방학에 축구 할 기회가 적어지자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고 축구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한 클럽축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충분히 재미있게 축구를 즐기고 있고 중학교부터 선수를 하겠다는 아이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클럽축구의 테스트를 받도록 계획을 짜 놓았다. 욕심이 생겼는지 은근히 합격을 기대했고, 기다리던 합격 소식에 아이도 축구클럽에 가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다. 나는 ‘작전 성공! 드디어 됐다. 큰물에서 놀 수 있다. 드디어 시작이다.’라며 아이의 결정에 함께 기뻐했다.

첫날, 서울 서부지역의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축구부에 다니게 된 자부심과 미래의 밝은 그림을 그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축구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마음이 2시간 만에 무너져버렸다. 낮가림이 있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아이가 축구를 잘하는 형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실력 발휘도 못하고 그만 주눅이 들어버린 것이다. 처음 하는 스탬페더에서는 얼굴이 울상이 되어 억지로 훈련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집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안가겠다고 한다. 시작은 나였지만 본인도 동의해서 왕복 40킬로미터에 3시간을 투자하고 낮선 엄마들과 어울려 있어야 하는 나의 노력은 알아 주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그만두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다음날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시작한 이상 어딘가에 마침표는 찍어야 한다는 엄마의 욕심에 좀 더 설득해보리라 마음먹었다. 이게 부모의 욕심인가보다. 한번 발을 내밀면 앞으로만 가려고 하고 뒤로 물러나기 싫어하는 모습. 아니 나도 역시 보통 엄마인가보다. 누군가 그랬다.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스스로 즐겁게 열심히 한다고, 나도 좀 더 기다려줄걸. 내가 벌린 판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하다. ‘태준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김정인(13기 상담원)

마중물

# 서울대 아이들, 이들에게 이후 세대를 맡겨도 될까?

편집자 주 : 이번 호부터 저희 회 역대 회장인 고문님들과 지속적으로 저희회를 도와주시는 여러 자문님들의 컬럼을 연재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도가니 열풍에 이어 학교폭력 열풍에 휩싸여 있다. 교육학을 연구하는 나로서 이 두 사건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자책을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이것은 사회적 폭력의 반영이니 결국 사회구조적 비리를 바로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교육문제는 사회 안의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러한 관계를 왜곡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실종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까닭에 내가 일하는 학교부터 인간미가 넘치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따뜻한 마음 속에서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대학시

절 다분히 이상적으로 믿어왔던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 환원의식’을 이 시대 대학생들도 가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부딪혔던 서울대 아이들이 아주 예외적인 소수이기를 희망한다. 지난 해 4월 첫 주 토요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결혼식장에 갔다가 마을버스를 타고 낙성대역으로 나왔다. 이 해프닝은 바로 마을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버스 정류장에 가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과 야외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줄을 서있었다. 선생님은 맨 앞에서 아이들에게 질서 지켜줄 것을 요청하지만 통제가 잘 안되시는 모양이다. 아이들이 오래 기다렸는지 “걸어가요!” 그러는 아이도 있다. 마침 서울대에서 나온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 역시 사람들로 만원이라 타는 과정에서부터 아우성이다. 기사아저씨는 서로 양보하며 타는 것이 좋겠다며 앞 뒤 문을 모두 열어주었다. 아이들은 좁은 차 안에서 지명할 기동도 없던 상황이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난리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차안은 어수선했다. 나도 끼어서 뒤쪽으로 밀려갔고 그 와중

에 서울대생 두 명이 이 상황을 해석하고 불쾌해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저 대책없는 아이들, 어디에 넣어버릴 데 없냐?” “초등아이들은 교도소도 안가. 아마 소년원에 갈걸. 사고를 칠라면 그래서 일찍 쳐야 돼. 소년원으로 때우면 되잖아.” “선생도 안 따라 왔냐?” 그러면서 교양시간에 들은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하며 마치 법조인인양 큰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차안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한 곳이었는지를 상상한다면 이 학생들의 대화 역시 또 다른 소음을 보태주는 것이었다. 초등아이들은 여전히 소리지르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 때 서울대 아이들 왈,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냐? 쟁피하다.” 그 때 아이들이 버스 급정거에 “악!” 하고 소리지르자 “아, 짜증나.” 그러는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난 너희들 대화가 무지하게 짜증난다.” 그랬더니 “네?” 하고 반문하는 게 아닌가? “너희들 대화내용이 나를 무지하게 짜증나게 한다고.” 그 말에 귀공자같이 앉아 있던 아이는 아무 소리도 안한다. 그 때 앞의 초등아이가 내 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 내가 등을 받쳐주었더니 환히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다. 이 어린 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말씨에 서울대 아이들 대화로 불쾌해했던 내 마음은 다시 희망으로 피어났다.

강순원 (자문위원, 한신대학교 교수, 국제이해교육학회 회장)

회원 인터뷰\_동북부지회 알림일꾼 심찬구

## 불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Q 본인과 가족을 소개하여 주세요.

A 우리 가족은 남편과 큰딸, 아들 둘 그리고 저 이렇게 5식구입니다. 큰아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는 ‘범생이’로 자기가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고, 반대로 둘째와 막내는 가족으로서 학생으로서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범생이와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제가 어머니기에 장점도 눈에 보이는데 둘째는 무관심하기 쉬운 생명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자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는 위치라서 그런지 무대포적 자신감이 장점인 듯 한데 어찌하면 그리 자신만만한지 다른 형제들이 참으로 부러워합니다.

Q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 보람을 느끼신 일이 있다면...

A 아이를 키우면서 저만의 교육관과 그것으로 인한 보람을 직접적으로 느낀 적은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밖에서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고 더불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고 만족스럽습니다.

Q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참학과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A 처음 관계를 맺은 것은 지금부터 2년 전, 우리 둘째와 동북부지회장인 나명주님 둘째가 같은 반이었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저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점심을 얻어먹었죠. 그이후로 잊을 만하면 연락이 오고 만나면 저를 어떻게든 엮어(?) 보고자하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절실히 보이는 눈빛을 늘 느끼면서 뭔가 도움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Q 참학과 관계를 맺은 후 어려운 일과 보람을 느끼셨다면.....

A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참학활동을 하면서부터 종종 체력적으로 소모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면 즐기면서 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기분에 빠지기도 하지만, 제가 맡은 일의 성과에 대해 다른 일꾼들이 내일처럼 기뻐해줄 때 보람을 느끼

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낸 올 지회 ‘예비학부모교실’을 자랑하고 싶네요. 몇 달 전부터 예비학부모교실을 준비하느라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 했습니다. 지회장님은 어떻게든 안해주려는 교육청관계자들을 견인하느라 교육청장님을 몇 번씩이나 만나고 하여 각 학교에 예비학부모교실 공문도 보냈고 교육청강당을 빌리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진우팬카페’와 같은 인터넷카페 회원들까지 알려져 3회에 걸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공적인 예비학부모교실을 개최하였습니다. 일꾼은 물론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거의 완벽하게 성과를 냈고 이런 과정에서 보람과 기쁨, 활동의 맛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Q 본부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A 각 지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북부지회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발전하는 중이라고 자부합니다. 각지회의 역동적인 기운이 본부를 통해서 전국의 지회로 번진다면 다시 한 번 참학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열정과 패기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다보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조금은 부족할 지라도 회원들의 의욕이 샘솟을 때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불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부지런히 장작을 패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자유투고

## 나무가 사람에게

세상에 쓰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물론 사람에 따라 성품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겠지만  
 동량이 되고 마루가 되고 장작이 되고 방방곡곡  
 들어차서 바위가 되고 나사가 되고 바닥이 되어서  
 세상을 떠메고 가지 않겠는가  
 곧은 사람은 곧은 사람대로 구부러진 사람은 구  
 부러진 사람대로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  
 은 작은 사람대로  
 쓰임이 다를 뿐이지 세상에 쓰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농부는 농부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사무직은 사  
 무직대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 있  
 겠는가  
 하다 못해 즐파산자도 실업자도 병자도 유랑인도  
 노숙자도 장차 세상의 쓰임을 기다리는 잠재적 인  
 력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쓰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나무가 모두 나무이듯이 사람도 모두 사람일 뿐  
 이니  
 세상 앞에서는 잘 난 사람도 못 난 사람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시샘도 깔봄도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강물을 내려  
 보내듯이 온갖 문양의 사람들도 세상을 이루고 역  
 사를 만들어 내지 않겠는가  
 그러니 사람들이여 지금 잘 나고 못 났다고 일희  
 일비할 일이 아니구나  
 만인지상도 금의환향도 저 혼자서 이룬 것이 아  
 니구나  
 땅이 되고 바닥이 되어서 다리가 되고 어깨가 되  
 어서  
 받혀준 이웃이 있어서 세상이 있어서 금이 되고  
 꽃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사람들이여 사람만 보  
 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이 금처럼 은처럼 빛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사람들이여 세상만 보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이 꽃처럼 달처럼 피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이 평등하듯이 사람의 쓰임도 평등한 것이  
 구나  
 사람의 쓰임이 이렇게 귀하고 드높듯이 이웃도  
 귀하고 드높은 것이구나

세상에 쓰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선비는 선비답게 농부는 농부답게  
 기술자는 기술자답게  
 상인은 상인답게  
 목숨 받혀서 쓰이는 것이  
 만인지상이고 금의환향이구나

최기종  
 (목포지회 부지회장, 목포기계공고 교사)



## 밥상머리교육(18)

## 다산의 밥상머리교육



요즘 학교폭력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양처럼 단  
 계적으로 처벌하자는 '옐로  
 카드'(Yellow Card) 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어  
 떠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도  
 무너진 가정교육을 되살리  
 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  
 다. 인성교육을 되살리는 가정교육의 중심은 결국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밥상머리교  
 육'인데 특히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 밥상머리교  
 육은 '동방예의지국'이란 호칭을 듣게 했던 우리 한  
 민족의 오랜 전통가치였다. 그러나 한국의 아버지  
 들은 경제의 압축성장을 위한 기업전사로 경제전  
 쟁터에 내몰리면서 오랫동안 집에서 저녁밥상자리  
 를 비워왔다. 이제 무너져버린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밥상머리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이 앞장서  
 아버지들을 일찍 귀가시키자.

올해는 다산 정약용이 태어난 지 250년이 되는  
 해이다. 다산은 서구문화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18세기말의 유학자로 새로운 문명인 서학을 도입,  
 실학을 완성했다. 18년의 긴 강진 유배생활에서도  
 학문에 몰두해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를 편찬, 학  
 문의 거대한 숲을 이루어 동양의 레오나르도다빈

치라는 말도 듣는다. 그러나 다산은 단순히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 천재학자가 아니다. 동양의 (일원론  
 적 자연철학이 기반이 된 오랜 가치체계인) 성리학  
 에 서양의 (이원론적 분석적) 이질적 가치를 융합해  
 다양한 가치의 새로운 관점을 인류에게 제시한 사  
 유의 깊이와 방대함에서 인류역사상 학문의 최고  
 봉에 오른 성학자(聖學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산을 평가하는 이유는 그  
 의 목숨을 건 지극한 백성사랑과 가족사랑으로 이  
 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다. 당시 그는 부패한 관리들의 가렴주구로 신음하  
 는 백성을 되살리기 위해 관리들의 교육서인 목민  
 심서를 만들고 일하는 백성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야한다는 여전제를 주장했다. 한편, 그는 무  
 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독서를 지도하  
 는 등 자녀교육에 힘썼다. 심지어는 유배를 가셔도  
 실의에 빠져 술로 지새던 둘째 아들 학유에게 편지  
 로 교육을 시켰다. "폐족 가운데서 왕왕 특별히 재  
 주가 뛰어난 기재(奇才)가 많은데 이것은 다른 이유  
 가 아니고 과거공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러니 과거를 못 본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독  
 서에 열중하기 바란다."며 편지로 숙제를 내주고 고  
 쳐주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학문을 이끌었  
 다. 학유는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에 상응해 다산의  
 평생관심사였던 주역의 해설서인 주역심전을 완성

하는 일에 동참하며 아버지의 학문 활동을 도왔다.  
 더 나아가 그는 농가에서 매달 해야 할 농사일과  
 풍속 등을 구체적으로 한글로 읊은 '농가월령가'를  
 펴내 농민들을 도왔고 우리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  
 겠다. 특히 다산은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삶을 겪으  
 면서 직접 농사도 짓고 농법을 연구·개선하는 등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아들이 대를 이어 실  
 천한 것이다. 다산교육법은 경쟁보다는 자율적 인  
 간관과 실천적 삶을 가르쳐 무한경쟁에 빠져 진정  
 한 교육의 바탕인 인성교육을 망각한 현대인들에  
 게도 귀감이 될 만하다.

마침 정부에서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공무원들을 일찍 귀가시킨다고 하니 기업들도 이를  
 따라 가정을 되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밥상머리교육을 중시하는 가정의 학생이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A학점을 받는 비율이 두 배나 높  
 고,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결과(2003년)도 있다. 더구  
 나 요즘은 온라인매체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는데 구태여 밤늦게까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일터에 붙잡아 놓을 필요가 없다. 엄마도 가족들과  
 함께 정성껏 된장국을 준비해 패스트푸드 등 간편  
 식품때문에 빼앗긴 건강을 되찾아주어야 공부도  
 더 잘한다.

이기영(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 호서대 교육대학원장)

# 생명생태주의 시각에서 본 방송 모니터링

## 음식 프로그램, 생명체라는 인식부터



음식은 곧 생명이다. TV 교양 프로그램 속 음식을 다룬 프로그램들은 음식은 생명이라는 대전제를 잘 전달하고 있을까? 우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4달간 지상파 TV 교양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명생태주의 시각에서 본 방송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점은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보여주기 위해 살아있는 생명체를 서슴없이 죽이고 토막내고 회 뜨는 장면을 끊임없이 보여 준다는 점이다. 이는 동식물이 단순히 인간의 먹거리가 아닌 또 다른 생명체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자칫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 가. 분석대상 교양 프로그램 30~60% 음식관련 내용

#### 나. 전체적인 경향

- 1) 음식소재, 생명체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 2) 육식에 편중된 식단, 건강을 위협한다.
- 3) 높은 외식 비중, 식생활비 부담스럽다.
- 4) 밥상문화가 있는 음식프로그램이 아니다.
  - 음식만 있고 음식문화는 사라졌다.
  - 12인 가구가 절반. 아직도 음식을 푸짐하게 잔뜩 차리고 있다
  - 음식은 손맛, 비닐장갑은 이제 그만 사용하자

우리 민족은 하수구에 물을 버릴 때도 땅 속에 깃든 생명들이 다칠새라 차갑게 식혀서 버리거나, 집안에 경사가 있어 닭을 잡을 때도 아이들을 대문 밖으로 내보내 살생 장면을 못 보게 하는 등 고유의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러한 정신기반이 무너지고 식도락을 위해 살아있는 생명체를 함부로 다루고 도외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되고 방송은 음식의 재료가 되는 동식물이 단순한 먹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없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산란기 심통이 배를 짝 갈라 알을 싹싹 훑어내고, 선상에서 갓 잡은 산 도루묵 알을 짝 짝 찌서 바로 먹고, 주꾸미는 머리가 맛있다며 머리를 와작 씹어대다가 하면 살아서 파닥대는 광어머리에 칼을 꽂고 회를 뜨고, 초대형 생 참치를 2명의 요리사가 머리, 목살, 턱살, 몸통, 등살을 차례대로 해체하는 장면을 마치 쇼처럼 방영하는 등 TV 속 생명경시적 표현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생명경시는 그 장면에 빈번히 노출되는 시청자의 생명성을 죽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잔인한 장면을 보면 고개를 돌리

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러한 장면들에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생명경시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일조하게 된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특히 생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소중하게 다루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음식은 자연으로부터 온다. '무한리필', '상다리 휘어지게', '실컷 먹는다'는 방송의 표현처럼 과도한 음식물의 소비는 자연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된다. 과한 상차림은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파괴는 먹거리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체와 내가 이 음식을 먹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 대한 감사함이 공존하는 양식있는 음식문화가 자리잡도록 방송과 시청자가 함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박희숙(사단법인 보리 총무간사)

<http://cafe.daum.net/boribang>

전화 : 02-745-5811 (boribang90@hanmail.net)

# 지상파 재전송 분쟁 해결은 국민 편익이 우선

## 지상파방송은 재전송료 챙기기 전에 난시청해소부터

케이블TV 가입자들이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무려 28시간 동안이나 KBS2를 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관한 것이다. 피해 범위는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어선다. 전력이 중단되어서도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서도 아니었다. 경쟁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업자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청자를 이용한 것이다. 더구나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사과나 보상도 없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작업만큼 중요한 것이 이 분쟁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8년 IPTV 도입. 후발 유료방송사업자인 IPTV는 가입자들에게 지상파방송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상파방송 재전송료 지불을 약속하였다. 지상파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환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지렛대 삼아 무료로 재전송을 해온 위성방송과 케이블TV에도 재전송료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은 지상파방송의 요구에 승복하였다. 이제 지상파방송에게 대가를 주지 않는 사업자는 케이블TV가 유일하다. 케이블TV는 아날

로그 유료방송 가입자의 85%를 넘는 만만치 않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 지상파방송은 협상 개시 후 법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과 2심 승소 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케이블TV의 주장은 지상파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이나 실제로는 그 역할을 방기하여 난시청 지역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달 역할을 대행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 이를 부정하고 다른 유료방송사와 같은 비용을 지불하라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직접 수신 가구 8.9% 수준인 지상파방송이 광고주들로부터 높은 전국광고료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공이라는 것이다. 이에 KBS2의 중단을 통해 자신들의 네트워크 파워를 입증하고, 보편적 전달의 책임이 있는 공영방송 KBS2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려 한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임의로 방송을 중단하는 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문제는 지상파 난시청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방송이 끊어지면 다른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는 한 불편 상황을 그대로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옮겨간다고 해도 그쪽에서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이번 케이블TV와의 분쟁이 최종 마무리되고

계약이 성사된다 하여도 매년 혹은 2~3년마다 사업자간 협상이 재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인상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제도 개선은 단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안정적인 지상파방송 시청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청자단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직접 수신 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 시점을 계기로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망 구축을 강화하고 이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쟁 중 특정 방송이 중단되어도 플러그만 꽂으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 편익을 위협하는 사업자는 시장 퇴출에 준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논의가 충분한 유료방송 의무재전송 대상 범위는 그 이후에 정해도 늦지 않다. 지금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 김중만 선생님이 들려주는 놀이 이야기



아이들 민속놀이 100가지

김중만 지음 | 이태수 그림 | 254쪽 | 값 10,000원  
\*2007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2008년 아침독서 추천도서



잘 놀아야 철이 들지

김중만 지음 | 이태수 그림 | 238쪽 | 값 10,000원  
\*2007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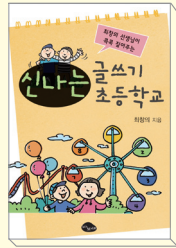
북녘 아이들 민속놀이 100가지

김중만 지음 | 이태수 그림 | 234쪽 | 값 10,000원  
\*2007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교육 현장에서 오늘의 아이들과 '잘 놀아본' 결과물이다. -박상률 | 동화작가

· "애들이 나오나라 함께 놀자꾸나"  
-권해문 | 어린이 놀이노래연구실 (씨동무)

● 최창의 선생님이 꼭꼭 짚어주는



신나는 글쓰기 초등학교

최창의 지음 | 안홍근 그림 | 240쪽 | 값 13,800원  
\*2008년 어린이문화진흥회 좋은책 선정도서



행복한 글쓰기 초등학교

최창의 지음 | 안홍근 그림 | 264쪽 | 값 13,800원  
\*2008년 어린이문화진흥회 좋은책 선정도서

· 거짓과 꾸밈이 없는 어린이들의 글쓰기 나라  
-김용택 | 시인

· 신나게 글을 쓰면서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이주영 | 한국어린이문학회 회장



파랑새

배평모 성장소설 | 326쪽 | 값 12,000원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물질적 풍요 속에 살면서 삶에 있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방향하는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꼭 읽고 싶은 소설이다.  
-신경림 | 시인



신 일본 속의 한국문화답사기

이윤옥, 김영조 지음 | 333쪽 | 값 15,000원  
\*2011년 올해의 청소년 도서출판문화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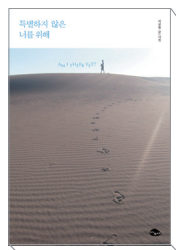
· 백제인의 향기와 번득이는 신라인의 지혜, 자랑스러운 중원의 왕자 고구려의 발자취를 느끼기 위해 저자들이 발로 쓴 책이다.



마음에 이슬하나

전택원 지음 | 518쪽 | 값 15,000원  
\*2011년 올해의 청소년 도서출판문화협회

· 이 땅에서 살아온 한 사람의 체험을 바탕으로 진리와 역사를 관통하면서 지금까지의 철학사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담아내고 있다. "도선비결"이라고 하는 예언, 분단 상황과 북한의 굶주림, 그리고 한 사람의 철학적 체험이 그것이다.



특별하지 않은 너를 위해

지상철 글·사진 | 293쪽 | 값 13,000원

· 2009년 대학생활을 휴학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들고, "이십대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된 여행기는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1년 6개월에 걸친 저자의 청춘기록이다.

전화 | 02)335-7883, 이메일 | babosae7881@yahoo.co.kr



# 학교, 겁내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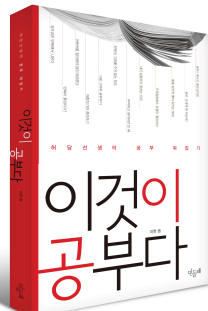
참교육학부모회 기획 | 박이선 · 황수경 지음 | 값 12,000원

참교육학부모회에서 기획하고, 십 년 넘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선배 학부모가 시시콜콜 들려주는 학교생활 안내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학습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학교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에 내야 할 돈과 내지 말아야 할 돈은 무엇인지, 학교일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을 기본지식을 비롯해 지혜롭고 건강한 학부모가 되는 길을 보여준다. 학교, 아는 만큼 보인다! 무턱대고 불안해 말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학부모는 학교를 겁내고, 학교는 또 학부모들을 겁낸다. 두려움은 관계를 망친다. 겁내지 않으려면 서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선입견,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교에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다. \_박재동(만화가)

## 허당 선생의 공부 뒤집기



# 이것이 공부다

이한 지음 | 값 13,000원

퀴즈 쇼 준비가 아닌 진짜 공부를 하자!  
『학교를 넘어서』를 통해 교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의문을 던졌던 저자가 풀어놓는 본격 공부 탐구서!

왜? "우리 아이는 왜 공부의 신이 못할까?"  
어떻게? "공부, 공부, 공부! 도대체 공부는 왜 하는 걸까?"  
"진짜 공부,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평생 공부와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공부 앞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눅부터 듭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답을 빨리 맞추는 퀴즈 쇼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 준비를 공부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퀴즈 풀 푸는 아이들을 '공부의 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퀴즈 같이 정해진 답이 없지요. 빨리 풀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구요. 세상에는 풀어야 하는 진짜 문제들이 널려 있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진짜 공부가 아닐까요? 한때 '공부의 신'이라 불렸던 이가 진짜 공부의 맛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터득한 공부 비법을 시시콜콜 귀뜸해줍니다.